

# 국외 학교 음악수업에서 활용할 한국음악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권 수 미

1. 도입
2. 문헌연구
3.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 개발
4. 국외 학교 음악수업에서 활용할 한국음악교육자료 개발 사례
5. 나아가며

[www.kci.go.kr](http://www.kci.go.kr)

## 개 요

최근 한류나 K-pop의 열풍으로 세계가 한국의 음악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한국 음악의 정확하고 적합한 교육 자료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음악의 종류와 다문화적 학습 요소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국외 학교음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음악 자료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인 *Spotlight on Music Gr. 3-6*에 수록된 한국음악의 종류와 학습방법을 분석하고 다문화 음악교육자료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문헌 연구하였다. 동시에 초·중급 수준으로 편곡되어진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Bird, Bird, Blue Bird)를 음악적·문화적 교육 자료와 함께 소개함으로써 국외 학교 음악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자료로 제공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한국민요, 한국동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미국음악교과서

## 1. 도입

1980년대 후반부터 음악교육자들은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Praxial Philosophy)의 영향으로 음악교육은 서양 전통 음악 범주에서 벗어나야 현대의 다양한 형식의 음악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천주의’의 ‘실천’은 행위 및 행동을 뜻하는 ‘praxis’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론을 뜻하는 ‘theoria’와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다.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의 관점에서 음악이란 ‘인간이 만들어 낸 산출물’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천주의 음악교육의 궁극적 실재는 음악을 만들어 내는 실천적 과정과 행위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본 전제로 한다.<sup>1)</sup>

실천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음악교육학자인 엘리엇(D. Elliot)이 생각하는 음악의 개념은 ‘이 세계에는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며, 그 음악적 특성은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 위에서 발전해오고 있다’는 전제 위에 있다<sup>2)</sup>.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현대음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음악작품을 학습하고자 할 때 작품이 탄생했던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신념과 가치 등을 함께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의 특수한 개념은 결국 다문화적 음악교육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다문화주의는 유럽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일문화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념으로,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20세기 초반 다

1)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2013), 32.

2) J. Elliot David,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29.

민족의 이주가 많았던 나라들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는 21세기 지구촌 공동체 시대를 맞아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소수 인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방법으로 음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sup>3)</sup> 음악 교육자들도 학교 음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속 음악적 교육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내 학교 음악수업을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 개발에 애쓰는 동안, 국외에 외국인이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음악교육자료를 개발 하는 데는 아직 그 힘이 닿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합창 교사인 보우만(Bowman, 2008)<sup>4)</sup>은 학교 음악수업을 위해 한국 음악교육자료를 찾았으나, 세계 민요 대백과사전 (Master index of songs)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민요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한국 민요는 일본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중국 민요나 일본 민요의 영향을 받아 거의 비슷하다”란 오해까지 존재한다고 서술하였다. 최근 한류나 K-pop의 열풍으로 세계가 한국의 음악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비해 국외에서 한국음악의 정확하고 적합한 교육적인 자료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음악 교육자들의 한국음악 교육 교재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을 말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음악의 종류와 다문화적 학습 요소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국외 학교음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음악자료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김기숙·김용희, “다문화 놀이를 활용한 초등음악 프로그램이 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4/1 (2015), 1-23.

4) Barbara G. Bowman, “Korean Folk Music in Your Curriculum,” *Music Educators Journal* 95/1 (2008), 48-53.

## 2. 문헌 연구

### 1) 다문화 음악교육

과거 ‘단일민족’이라 자칭하던 한국은 사회적인 정보화·개방화에 따라 ‘세계화’라는 교육적 이상에 초점을 두고 국가 간 이해 교육 즉, 국제 이해교육으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일정한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것’<sup>5)</sup>이라고 정의된다면,<sup>6)</sup> ‘다문화 음악교육’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다양한 집단이 갖는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음악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지향하는 것’<sup>7)</sup>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8)</sup>

다문화 음악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여 단순히 악보 보고 노래하며 그 노래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지도 속에서 지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음악교육이란 다양한 집단의 음악적 특성과 함께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의 가치까지 교육 내용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다.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음악적 이해는 물론 음악학습의 심미적 체험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 루솔로(Luigi Russolo, 1885-1947)는 소음을 의식적

---

5) A. Banks James,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 and Practice,” in *Handbook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edited by James, A. Banks, J. A. & Banks, C. A. M.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4).

6) M. Lee Manning & Leroy G. Baruth. *Multicultural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5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Co., 2008).

7) Patricia S. Campbell, “Cultural Consciousness in Teaching General Music.” *Music Education Journal*, 78/0 (1996), 30-36.

8) William M. Anderson & Patricia S. Campbell,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2nd ed.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6).

으로 예술 음악 안에 넣으려는 소음주의(Art of Noise)를 소개하였고, 이는 현대음악의 한 갈래인 존 케이지(J. Cage, 1912-1992)의 우연성 음악의 선구가 되었다. 케이지는 “현대 음악은 소리를 창조하는 작업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하며 욱조에 물을 흘려보내는 소리, 믹서 돌리는 소리, 증기주전자 소리, 피아노 뚜껑 여닫는 소리 등 생활 속에서 발견하여 계획한 소리를 음악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케이지의 공연은 ‘소음주의’라는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알고 음악 감상을 하여야 현대음악을 보다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문화 음악교육은 음악이 갖는 보편성과 함께 소수 집단만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를 지도하기 위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은 교사에게 보다 많은 역할과 과제를 요구한다. 선정된 각국의 민요나 동요를 지도할 때에는, 그 음악이 탄생하게 된 각 문화의 특징까지 깊이 있는 지도 자료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음악관련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 준비에 따른 업무 과다와 교사 훈련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다문화 음악교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sup>9)</sup> 결국 다문화 음악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음악적 보편성과 문화적인 특수성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교수 자료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 2) 국내외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교육자료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이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교육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왔다. 현재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따르는 국내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는 국내 많은 음악교육

9) 김용기,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에 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2), 56.

학자들의 노력으로 학년군별 8종(3~4학년군)과 6종(5~6학년군)이 개발되어 있다. 이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단원의 구성 체계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크게 각 문화의 동요, 민요, 노래(창작곡)의 세 가지 유형이 학년군별로 5~15곡 정도 분포되어 있다. 이들 제재곡들은 크게 음악중점 활동, 전통문화중점 활동, 기타 활동의 세 가지에 관련된 다문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특히 다문화 음악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음악 활동 이외에 음악과 관련된 (전통)문화 활동에 해당하는 적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음악활동이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어 있는데 반해, 전통문화 활동으로는 민속춤추기 활동만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타 활동으로 원어와 번역가사로 부르고 느낌 비교하기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활동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개발을 위한 교육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지구촌 공동체로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교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음악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개발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음악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대적·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작품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가사의 번역 및 초·중급 수준으로의 편곡 작업은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예술가와 교육자들이 수행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에 한국의 음악이 어떻게, 또 얼마나 소개되어 있고 있는지 조사하여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의 학교 음악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는 MacMillan/

10) 함희주, “초등음악교과서의 다문화 단원 구성 체계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6 (2015), 255-276.

McGraw-Hill과 Silver Burdett 두 개의 회사 중 MacMillan/McGraw-Hill이 개발하여 출판하고 있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Spotlight On Music*을 선정하여 미국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음악의 종류와 다문화적 학습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음악교육자들이 세계 속의 한국 음악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단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들이 2년에 걸쳐 교과서를 제작하고 주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3년이 되는 해에 각 출판사가 제출한 교과서를 약 1년 정도 걸리는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sup>11)</sup> 오랜 기간의 제작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 교과서마다 내용이 방대하여, MacMillan/McGraw-Hill에서 출판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Spotlight On Music*은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400여 쪽에 약 250여곡에 이르는 방대한 제재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3~4학년 통합교과서의 2배 분량이며 학년으로 비교할 경우, 거의 4배 분량에 이른다. 3~6학년에 이르는 *Spotlight* 교과서는 모두 제 1장 음악개념, 제 2장 음악독보, 제 3장 음악연주, 그리고 제 4장 행사음악으로,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음악 개념, ②독보, ③가창, ④기악, ⑤감상, ⑥신체표현, ⑦음악과 생활, ⑧다문화 학습이 주요 활동들이다.

*Spotlight On Music*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들 중에서 다문화적인 악곡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인지라 음악교육이 전적으로 다문화 음악교육에 기틀을 두고 있어 교재의 구성 자체가 다양한 민족과 나라의 음악들을 제공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Spotlight On Music* 4학년 음악교과서에는 제 1장에 음악개념을 위한 제재곡이 130곡, 제 2장 음악독보를 위한 제재곡이 50곡, 제 3장 음악연주를 위한 제재곡이 32곡,

11) 권덕원. 최미영, “미국초등음악교과서 *Spotlight on Music*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초등 음악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 『음악교육공학』 24 (2015), 33-58.

그리고 제 4장 학생공연을 위한 행사음악이 30곡이 수록되어 총 400쪽 분량의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 감상, 기악 작품은 총 242곡에 이른다. 이 중 다문화 음악교육을 의도해 작품의 발생지역을 표기한 제재곡만을 빈도 분석해 보면, 북미, 중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는 민요, 동요,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제재곡이 대략 186편 수록되어 있다.

[표 1] *Spotlight On Music*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제재곡의 소속과 빈도

대륙	음악의 종류	수록 빈도 (N)
북아메리카	미국민요, 카우보이송, 인디언민요, 흑인영가, 쟈즈, Patriotic, 캐롤, 뮤지컬·영화음악, 미국 클래식 음악 등/	96
중남미 아메리카	자메이카 민요, 페루 민요, 쿠바, 도메니카, 과테말라, 파나마, 푸에토리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민요와 클래식 음악	20
유럽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러시아, 헝가리 등지의 민요와 클래식 음악	48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리베리아, 토고, 콩고, 남아프리카의 민요	5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스라엘 민요 등	17
총 합계		N=186

국내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다문화 음악 제재곡이 기껏해야 5~10편 밖에 실리지 못하는데 반해, 미국 음악교과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양적으로 방대한 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수의 제재곡들 중 미국음악교과서 *Spotlight On Music*(3~6학년용)에 수록된 한국 민요나 동요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과 내용이 수록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Spotlight On Music 3~6학년에 수록된 한국 민요와 동요

학년	Gr3	Gr4	Gr5	Gr6
제재곡	Bohm(봄)	Ban Dal (반달)	Gaeul(가을)	·
			Arirang(아리랑)	
			Nongak(농악)	
음악적 활동	손기호를 활용한 솔페지 활동	·	가을: 가창활동	·
			아리랑: 가창, 5도 음정을 활용한 반주 만들기 기과 감상	
			농악: 리듬 치기	
문화적 활동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가사 소개와 영어 번역</li> <li>가사 읽기 활동</li> <li>• '반달' 음악 감상하며 손뼉 치기 게임 삽화</li> </ul>	가을: 추석에 대한 문화 소개	·
			아리랑: 아리랑의 뜻과 간략한 소개	
			농악: 농악놀이의 기원 소개	

전체적으로 3~6학년까지 단지 5곡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에 1곡(봄), 4학년에 1곡(반달), 5학년에 3곡(가을, 아리랑, 농악)이 수록되고 6학년에는 실린 곡이 없어서, 약 1.25곡만 수록될 만큼 한국음악이 제한적으로 선정되어 있다.

### 3.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의 개발

#### 1) 음악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연계

다문화 음악교육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음악이 갖는 보편성에 해당하는 음악활동과 함께, 소수 집단만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문화 활동의 개발이다. 이는 음악적인 보편성과 사회·문화

적 특수성을 연결 짓는 과정이 없다면 단순히 해당 문화권을 소개하는 차원의 단편적인 수업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음악교육학자들은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악곡으로 수업할 때 해당 문화권의 음악을 이해시키기 위한 음악 내부적 고찰보다 음악 외적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민요가 쓰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sup>12)</sup> 예를 들어, 교과서에 소개하는 대부분의 음악적 요소는 악곡 자체의 리듬, 가락, 형식 등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이를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연결 짓지 못하는 점이나, 반대로 사회·문화적인 지식들은 국가의 지리적 정보와 특정 문화유산만을 언급하고 악곡과 연결 짓지 못하는 한계점이 바로 우려하는 부분인 것이다.

미국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곡의 음악활동과 사회·문화 활동을 살펴보면, 국내 음악교과서의 다문화 악곡 제시 방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인 음악적인 보편성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연결 짓는 과정이 간과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Spotlight On Music* 4학년 교과서에 실린 유일한 한국음악인 <반달>의 경우, 악보 제시마저 없이 한국의 지리적인 소개와 노래하며 즐길 수 있는 ‘손뼉치기 게임’만을 소개하고 있다.

---

12) 주대창, “아시아 민요의 구조 분석: 다문화적 수업을 위한 활용가능성의 추구,” 『음악과 문화』 16 (2006), 9-33.

(그림 1) Spotlight on Music 4학년예 수록된 제재곡 <반달>

**A Hand Clapping Game from Korea**  
 "Ban Dal" is a song from Korea. There is a hand-clapping game that goes with the song. Listen to "Ban Dal." Learn to play the game.

**LISTENING CD 9-11**  
**Ban Dal** by Yoon Kyeyoung  
 This song was written by the Korean composer Yoon Kyeyoung in the 1920s. It is known by many Korean children. Kyeyoung is considered to be a Korean national treasure by many native Koreans.  
 Pat with the beat as you listen to "Ban Dal" again. The beats are in groups of three.

반달  
 Ban Dal  
 Half Moon

1. 푸른 하늘 은하수 작은 배에엔  
 계수 나무 잎 나무꼭대기까지  
 달빛도 아니 달고 낮에도 길이  
 가기도 없도 건너서쪽 나라로

2.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저나산 어디로 가나  
 멀리서 뽕대란다 길을 찾아라  
 뽕대야 달려란다 길을 찾아라

1 In the blue sky, the milky way and a white boat  
 In the boat, a laurel tree and a little rabbit  
 While having no mast or even a punt pole  
 It moves smoothly to western lands

2 Moving toward the other side of the milky way to the  
 land of clouds  
 What will be encountered past cloud-land?  
 Sparkling in the far distance,  
 The morning star, like a light house, will guide the way.

<반달> 동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어른 구분 없이 창가를 부르던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창작동요를 지어보려는 의도로 윤극영(1903-1988) 선생이 만든 노래라는 음악 내부적 고찰이 간단하게나마 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시, 소파 방정환(1899-1931)이 제창한 어린이문화운동이 1923년 색동회에 의하여 펼쳐지게 되자 윤극영은 색동회의 일원이 되어 나라를 빼앗긴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동요를 부르게 하자”고 주장하며 1924년에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한다.<sup>13)</sup> <반달>의 가사 2절의 끝부분에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는 노랫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불행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비쳐주는 가사가 서정적인 선율과 어우러지고 있다.

13)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7).

[표 3] 〈반달〉 (Ban Dal, Half Moon) 1절 가사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In the blue sky, the milky way and a white boat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마리	In the boat, a laurel tree and a little rabbit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없이	While having no mast or even a punt hole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It moves smoothly to western lands

다음은 국내 미래엔(주)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같은 제재곡 <반달>의 학습내용과 간단히 비교해보고자 한다. 음악적으로는 리듬 동기와 악곡의 형식을 다루고 있으며 전통문화활동으로는 손뼉치기와 노래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나라별 교과서의 구성은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재곡에 대하여 본질적인 음악적·문화적 배경은 변하지는 않는다. 대신 무엇을 지도할지 그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해지고 덜해질 따름이다. *Spotlight On Music*에서는 특별한 음악적 개념이나 문화적 배경 제시는 없으며, 1920년대 한국의 작곡가 윤극영이 작사/작곡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학습 활동으로 가창활동과 함께 손뼉치기 게임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 내부적 고찰보다는 신체 리듬활동과 같은 음악 외적 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음악에 담긴 문화적 정서를 전달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한국어:** 토실 때실 밤송이엔 가을이 익어간다.

**발음:** to sil te sil bam song I en ga əl I ik ^ gan da

**영어:** Chest-nut fat and ripe on the tree, mirrors the rip-en-ing year

**한국어:** 때릉 때릉 방울 벌레 들국화 꽃피우고

**발음:** te rung te rung bang ul bul le dul guk hwa gə pi u go

**영어:** "Dae rung, dae rung", crick-et calls out, Field flow-ers bloom in the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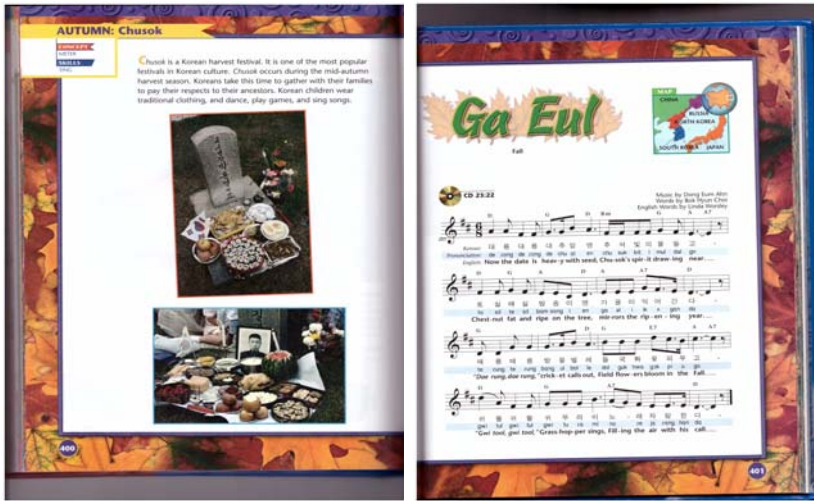
**한국어:** 귀뚜라미 귀뚜라미 노래 자랑한다.

**발음:** gwi tul gwi tul gwi tu ra mi no re ja rang han da

**영어:** "Gwi tool, gwi tool", grass-hop-per sings, Fill-ing the air with his call.

여기서 주목할 점은 *Spotlight on Music* 3~6학년에 수록된 한국 동요·민요가 단지 5곡에 불과하여, 한 학년 당 한 곡만의 한국 음악자료가 수록되는 제한된 상황인데, 한국 학생들에게도 낯선 창작동요 <가을> (안동음 작곡, 최복현 작사)이 미국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가을이나 추석에 관련된 풍부한 음악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가능하다면, 내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거나 음악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도 내용이 풍부한 동요나 민요로<sup>14)</sup> 외국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한국 음악문화에 대한 소통이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쉽게도 이 악곡은 다문화 음악교육자료 선정에 있어서 가능한 특정 사회의 문화적·음악적 특징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음악자료의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고 있다.

14) 예를 들어, <가을길>, <가을바람>(김규환 작사 작곡), <풍년가>(민요), <강강술래>(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민요) 등이 있다.

〔그림 3〕 *Spotlight on Music* 5학년예 수록된 제재곡 〈가을〉

## 2) 소통을 위한 가사의 전달

한국 민요·동요를 국외 학교음악 교육 자료에 수록할 때, 음악적·사회적·문화적 측면 이상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가사 전달’에 관한 문제이다. 음악을 아무리 만국 공통어 또는 공통 표현 방법이라고 하지만, 음악적인 이해가 깊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음악적·문화적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이 필수불가결하다. 이 때, 각 민요·동요가 만들어진 모국어에서 느껴지는 언어적인 감수성을 얼마나 제대로 다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번역의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표 5] <아리랑>의 번역된 가사를 살펴보면(2, 3, 4행) 문법상 영어와 한글의 가사의 어순은 바뀌었으나, 1행의 가사인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와 같은 교유명사는 어순의 변화 없이 원어의 독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Spotlight on Music* 음악교과서의 가사 제시 방법은 원어의

독음(발음)과 함께, 가사의 의미를 소통하기 위하여 영어 번역, 그리고 원어(한글)를 함께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것은 아직 국내 음악교과서에서 시도하고 있지 못한 방법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생소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글자 형태’도 해당 국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 중 하나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다문화음악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수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표 5] 〈아리랑〉(Arirang)의 가사

**한국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발음:** a ri rnag a ri rnag a ra ri yo

**영어:** A-ri-rang, A-ri-rang, A-ra-ri-yo

**한국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발음:** a ri rang go ge rul nə mə gan da

**영어:** You are go-ing far a-way o-ver A-ri-rang hill.

**한국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발음:** na rul bə ri go ga shi nun ni mun

**영어:** Oh, my friend, if you leave me here a-lone, may your

**한국어:**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발음:** shim ni do mot ka sə bal byəng nan da

**영어:** feet be-gin to hurt be-fore you've even walked the first hill.

#### 4. 국외 학교 음악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음악 자료 개발 사례

본 연구에서 국외 학교음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음악 교육자료 개발 사례로 제시할 작품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Bird, Bird, Blue Bird) [악보 1]이다. 이 장에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작품의 가사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학교음악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급 수준으로 편곡된 교육 작품들을 소개하며 각 작품별 지도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수많은 한국 민요 중에서 우선,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로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민요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세 음으로 구성된 간단한 민요 선율이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기억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작품 안에 음악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도 내용이 풍부하여 음악적인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연결 짓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악보 1]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선율



을 입은 일본군을 상징하고 있다.

[표 6]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가사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Bird, bird, blue bird, love-ly blue bird, Do not sit on flowering bean plants If flowers fall down, no bean will grow. A jelly maker goes home in tears. (번역: 권수미)
---	---

본 연구자는 ‘파랑새-녹두꽃-청포장수’의 인과관계 순서대로 단순하게 반복되는 가사를 사용하여 [표 6]과 같이 번역하였다.<sup>15)</sup> 아름답다고 번역된 ‘파랑새’는 실제 침략자인 일본군이나 이를 미화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짧은 가사에 역사적인 사건과 한민족의 문화적 정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이 민요는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된 단순한 선율로 노래되어 쉽게 기억되는 만큼 강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로 끝난 역사적인 사실과 본 민요를 연계하여 해석하면, 당시 민중의 절망을 상상하며 슬픈 정서를 음악적으로 단순한 선율과 느린 템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림 4) 전봉준(1855-1895)과 동학 농민 운동



15) Sumi Kwon, "A Development of Korean Piano Method with Accompaniment MIDI Disks for College Music Majors Whose Primary Instrument is Not Piano," Ed.D. Dissertation (T. C. Columbia University, 2006), 365.

## 2) 음악중점 활동자료: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음악적 특징

일반적으로 민요는 5음 음계(Pentatonic scale)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5음보다 더 단순한 3개의 음(D, G, A)으로만 이루어져있다.[악보 2] 단순한 선율은 음정구성도 완전4도, 완전5도 그리고 장2도만을 만들어내며[악보 3], 이들을 조합한 화음은 [악보 4]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쌓은 음의 순서에 따라 쿼터 코드(Quartal chord)와 키타 코드(Quintal chord)를 가능하게 한다. 이들 화음은 민요의 음정으로 추출되어 만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인 느낌의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쉬운 선율이 간단한 화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구전 민요로 자리매김했으리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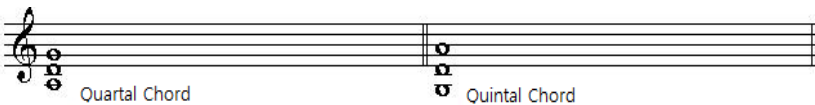
〔악보 2〕 5음음계와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구성하는 3음



〔악보 3〕 〈새야 새야 파랑새야〉 선율에서 가능한 음정 구성



〔악보 4〕 〈새야 새야 파랑새야〉 선율의 세 음으로 구성 가능한 화음



### 3) 다양한 음악 활동을 위한 자료의 확대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간단한 선율로 구성된 음악적 특징은 다양한 장르로의 접목을 용이하게 해 주어 일부 국내 작곡가들이 이 선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위해 많은 시도를 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민요를 활용하여 다문화 음악교육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급 수준의 가창·기악·감상 교육 자료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 (1) 김국진(b.1931~ )의 피아노 듀엣: *Der blauen Vogel(Blue Bird)*, Op. 240, No. 3

김국진의 피아노 듀엣 *Der blauen Vogel(Blue Bird)*, Op. 240, No. 3은 원래 피아노 연탄곡집 ‘네 손을 위한 한국의 소리 (Koreanische Klang für Vier Händen)’에서 발췌하였다. 작품집 안에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작곡된 피아노 듀엣 (One piano, four hands) Op. 240 (11곡)과 Op. 245 (4곡)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Der blauen Vogel(Blue Bird)*은 멜로디를 한 손으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손 유니손(Unison)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보 단계의 학생들도 쉽게 호흡을 맞추어 연주할 수 있다.<sup>16)</sup>

피아노 듀엣이 아닌 또 다른 연주 방법으로는 멜로디 선율을 피아노 이외의 리코더나 바이올린과 같은 솔로 악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혹은 가창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는 교육자의 지도 유형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주 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

16) Eunjung Choi & Sumi Kwon, “Multicultural Approach to Korean Contemporary Music with the Traditional Folk Song,” *American Music Teachers*. (2013), 18-23.

[악보 5] 김국진의 피아노 듀엣: *Der blauen Vogel*, Op. 240, No. 3

3. 파랑새  
Der blauen Vogel

진태 풍요 김 국 진 작품 240의 3

느리게

(2) 권수미(b.1970~ )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독주

다음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주제를 다섯손가락 단음계 패턴을 활용한 초급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4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하여 총 4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 간단한 이 독주곡은 각 프레이즈마다 반주 패턴을 변형시켰으며 약간 느린 템포에 선율을 레가토로 연주하면 서정적인 느낌을 살리는데 효과적인 교육용 작품이다.<sup>17)</sup>

17) Sumi Kwon, "A Development of Korean Piano Method with Accompaniment MIDI Disks for College Music Majors Whose Primary Instrument is Not Piano," Ed.D. Dissertation (T. C. Columbia University, 2006), 366.

(악보 6) 권수미의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독주

Andante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piano and consists of 15 measures. It is in 3/4 time and marked 'Andante'. The piece begins with a piano (*p*) dynamic. The right hand plays a simple melody with slurs and fingerings (e.g., 2, 3, 4, 5). The left hand provides a steady bass line with chords and single notes, also including fingerings (e.g., 1, 2, 3, 4, 5). The dynamics range from *p* to *pp*.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accents, and articulation marks.

(3) 이상근(1922-2000)의 파랑새 주제에 의한 다섯 개의 변주곡  
다음은 한국 작곡가 이상근(1922-2000)이 현대적 음악 어법으로 <새  
야 새야 파랑새야>의 선율을 다섯 개의 변주곡으로 작곡한 피아노 작품  
이다. 잦은 불협화음과 함께 두 마디마다 4/5박자와 4/4박자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변박하는 이 작품은 민요와 현대음악 기법이 접목된 감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악보 7]

[악보 7] 이상근(1922-2000) 파랑새 주제에 의한 다섯 개의 변주곡

Variation "Blue Bird"  
파랑새 변주곡

Theme  
Andante

## 5. 나아가며

음악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인 제도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로 인해 음악교육의 사회적 과제는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고, 시대

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정보를 획득하고 음악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8)</sup> 급속도로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이 갖는 음악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음악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현대사회 음악교육이 갖는 사회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문헌적 연구와 현재 국내·외에서 출판되고 있는 음악교과서에서 다루는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한국음악을 활용한 다문화 음악교육자료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다문화 음악교육자료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음악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도 내용이 풍부하여 음악적인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연결 짓기가 용이한 악곡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음악교육자들은 다문화 음악교육을 수행할 때 해당 문화권의 음악을 이해시키기 위한 음악 내부적 고찰보다 음악외적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민요·동요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해당 문화권을 소개하는 차원의 단편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 악곡 선정방법에 있어 가능한 내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관련 교육 자료가 풍부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수방법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가능한 다양한 학습 수준과 매체를 활용한 음악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 알려진 우리나라 민요나 동요를 바탕으로 한 편곡·창작 작품은 대부분이 상급수준 이상의 전문연주가들을 위한 작품이고, 특히 학교 음악 교육 자료로 외국에 알려진 자료는 지극히

18)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2013), 38.

제한적이다. 민요·동요를 활용한 음악교육을 선택교육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학습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히 가창 이외의 다양한 매체로 연주할 수 있는 초급 수준의 기악 및 감상 교육 자료도 다양하게 편곡되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음악교과서에 수록되는 다문화 민요·동요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국내 교육자들이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음악문화를 국외에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주체는 외국인이기보단 작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예술가와 음악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교육자들이 국내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되는 다문화 악곡 발굴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리 음악문화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덕원·최미영. “미국 초등음악교과서 *Spotlight on Music*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초등 음악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 『음악교육공학』 24 (2015), 33-58.
- 김기숙·김용희. “다문화 놀이를 활용한 초등음악 프로그램이 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4/1 (2015), 1-23.
- 김용기.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에 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2.
- 민경훈. “다문화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방향.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학회 연구 발표(분과3).” 『학습자 중심의 다문화교육의 방향』 (2009), 339-357.
-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2013.
- 주대창. “아시아 민요의 구조 분석: 다문화적 수업을 위한 활용가능성의 추구.” 『음악과 문화』 16 (2006), 9-33.
-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7.
- 함희주. “초등음악교과서의 다문화 단원 구성 체계 분석.” 『음악교수법 연구』 16 (2015), 255-276.
- Anderson, William M. & Campbell, Patricia S.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2nd ed. VA: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Eds., 1996.
- Bowman, Barbara G. “Korean Folk Music in Your Curriculum.” *Music Educators Journal* 95/1 (2008), 48-53.
- Banks, James A.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 and practice.” In *Handbook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edited by Banks, J. A. & Banks, C. A. M.,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4.
- Bond, J. *Spotlight on Music, Grade 3*. New York: Macmillan/McGraw-Hill, 2005.

- \_\_\_\_\_. *Spotlight on Music, Grade 4*. New York: Macmillan/McGraw-Hill, 2005.
- \_\_\_\_\_. *Spotlight on Music, Grade 5*. New York: Macmillan/McGraw-Hill, 2005.
- \_\_\_\_\_. *Spotlight on Music, Grade 6*. New York: Macmillan/McGraw-Hill, 2005.
- Campbell, Patricia S. "Cultural consciousness in teaching general music." *Music Education Journal* 78/0 (1996), 30-36.
- Choi, Eunjung & Kwon, Sumi. "Multicultural Approach to Korean Contemporary Music with the Traditional Folk Song." *American Music Teachers* (2013, Feb-Mar.), 18-23.
- Elliot, David J.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Kim, Kook J. "Der Blauen Vogel" Op. 240 No. 3 in *Koreanische Klang für Vier Händen*. Dongjin Music Publishing Co, 1997.
- Kwon, Sumi. "Development of Korean piano method with accompaniment MIDI disks for college music majors whose primary instrument is not piano." Ed.D diss. T. C. Columbia University, 2006.
- Lee, Sang Keun. "Five variations on a theme of Blue bird" in *Sang Kuen Lee Piano Works*. Eunag Chun-Chu-Edition, 2001.
- Manning, M. Lee. & Baruth, Leroy G. *Multicultural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5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Co., 2008.
- Teicher, J. M. "Effect of Multicultural Music Experience o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Attitud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3 (1997) 415-427.

Abstract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  
Materials Aiming for Foreign Students**

Kwon, Sumi

In these days many people in the world pay attention to Korean music and culture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or “K-pop” which refers to the significantly increased popularity of South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advanced by multiculturalism.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Korean music outside the country for classroom use and the lack of teaching materials may lead the music educators to teach without the fundamental musical understan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Korean music materials for foreign students outside the country. For this, *Spotlight on Music* Gr.3-6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music text book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to diagnose the use of Korean music materials. In addition, this study introduced one of the most famous Korean folk tunes, ‘*bird, bird blue bird*’ in different levels and types with teaching tips to incorporate multicultural experiences in their general music classes.

Keywords: Multiculturalism, Music education, Korean folk tune, Korean children song, ‘*Bird bird blue bird*’, *Spotlight on Music*.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일	2015년 11월 4일-27일	2015년 12월 5일